

침금

침금이란 옷칠이 굳은 칠기 표면에 침금칼로 문양을 새긴 뒤, 그 틈에 옷을 바르고 금가루나 금박을 채워 넣는 장식기법으로, 칠기로 유명한 이시카와현의 대표적인 전통 장식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기법은 중국 송나라 시대(960~1279)에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쟁금(鎗金)이라 불렸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한 물품들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무로마치 시대(1392~1573)였으며, 그 중 한 작품은 지금도 교토의 다이토쿠지 절 보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들은 그러한 작품을 연구하여 이 기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침금은 ‘가라앉힌 금’을 의미하며, 옷칠이 굳은 칠기 표면에 금속으로 만든 ‘침금칼(끝)’을 사용해 선이나 점으로 문양을 새겨 넣는 기법입니다. 장인들은 숟가락 끝의 날끝 모양을 다듬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끝을 만듭니다. 날끝의 형태 다른 둥근 모양, 각진 모양,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 거친 모양과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이 가는 대나무잎을 새길 때는 각진 모양의 끝을 사용하며, 새기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힘을 빼고 중간에는 힘을 주어 새깁니다. 대나무 줄기의 직선 라인은 날끝이 가늘고 약간 곡선형태를 띤 끝으로 새깁니다. 핀처럼 끝이 아주 가는 끝은 세밀한 문양이나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옷으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릴 때는 상처를 내거나 실수를 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양을 모두 새긴 후에는 새겨진 홈에 옷을 발라 넣습니다. 다음으로 화지(일본 전통 종이)로 표면을 닦아 여분의 옷을 제거해 홈 부분에만 옷이 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박이나 금가루를 탈지면 등으로 눌러 넣으며 홈에 채워줍니다. 금박이나 금가루는 홈 안의 아직 마르지 않은 옷에 부착됩니다. 옷이 완전히 마른 후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으로 여분의 금가루나 금박을 닦아내면 검은 옷칠 바탕 위에 빛나는 금색 문양이 나타납니다.

은이나 백금 등의 금속을 사용하면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숟가락 등을 겹쳐 사용하면 색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속가루 대신 주철이나 흑철을 사용해 새긴 문양을 채워 변화를 주는 기법도 있습니다.

침금은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특히 와지마시와 관련이 깊은데, 1955년에 마에 다이호(1890~1977), 1999년에 마에 후미오(1940~), 2018년에 야마기시 가즈오(1954~)와 같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배출했습니다.